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이 도쿄도내에 주는 영향

### ①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 도쿄, 「건강상의 위험 없음」 IAEA

【베를린 小谷守彦】국제 원자력 기구(IAEA, 본부·빈)의 그라함·앤드류 과학기술 담당 보좌관은 18 일,

같은 기관의 전문가 팀에 의한 방사선량 계측 결과, 「도쿄도내에서 건강상의 위험은 없다」라는 평가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 팀은 또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주변에 현지 잠입해, 활동을 계속한다.

도내 계측은 같은 날, 일본을 방문한 전문가 팀이 실시했다. 앤드류 보좌관은, 원자로에 통상 포함되는

방사성 요소나 방사성 세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 ②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 일본에의 도항 제한 「필요 없음」 WHO

【제네바 伊藤智永】세계 보건기구(WHO)는 18 일,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관련해,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반경 30 킬로 권내를 제외하면, 현시점에서 도쿄도내를 포함 일본에의

도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도쿄로부터의 「피난」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식품에

대한 「경계」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O는 인터넷의 홈 페이지에 「도항 제한 권고」와는 반대의 「도항

안전 권고」을 게재할 예정이다. 유엔 유럽 본부에서 기자 회견한 하틀 홍보관은, 도쿄 주변에서 검출된

방사선의 수치가 조금 증가 했다고는 해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에는 먼 레벨이다」 라고 강조.

「일본에 여행하는 사람은 방사선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 라고 말했다.

일부의 외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등이 도쿄에서 서쪽으로 「피난」 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문제다. 각각의 위기 대응이므로, 기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공중위생상, 도쿄에 체재하는데

건강상의 위험은 낮다」 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식품에 관해서는, 재해지역의 식품도 포함하여 「지진 재해 이전의 식품에는 위험은 없다. 재해

후는, 기후나 재해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재해지의 식품이 수출되었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말했다.

또, 「방사능 오염용」 이라는 표고 포함으로, 해외에서도 요소제를 대량 구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 치료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마이니치 신문 : 2011 년 3 월 19 일(토) 10 : 36」